

지역 소식통

정읍시, 인구 유입 정책 주택 전세자금 이자 지원

정읍시가 지역 내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전세 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은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내에서 연 1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다. 무주택 신혼부부 가정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결혼을 장려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혼인 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2017.4.1.~2022.3.31)인 무주택 신혼부부다.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정읍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부부합산 연소득이 8000만원 이하인 가구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 임대 주택 거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군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심의 회의 개최

부안군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지난 29일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2022년 상반기 지원협의회 심의 회의'를 개최했다. 지원협의회는 청소년상담 기관 전문가 경찰서, 보건소, 지역사회 청소년·사회복지·돌봄서비스 관련 기관 관계자, 언론사, 지자체 담당 공무원 등 각계 각층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원협의회에서는 2022년 참가 청소년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졌고, 프로그램 개발 및 아카데미 운영에 대한 지원과 자문, 지역자원 연계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참여 위원들은 청소년들의 학업 능력 향상과 정서적 안정 등 지속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부안군 관계자는 "청소년 활동·보호·지도 등을 통해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고, 가정의 사교육비 경감 및 양육 부담을 완화하는데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기자

#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 도시

정읍시, 보육환경 개선 총력... 가정양육 수당 지급 등 추진

정읍시가 저출산을 극복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정읍시 인구는 2015년 11만6천여 명에서 현재 10만6천여 명으로 매년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저출산으로 인한 자연 감소도 지난 2015년부터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선결과제 중 하나는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부모와 아동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시는 이를 위해 올해 230억원(국비

120억, 도비 63억, 시비 47억)의 예산을 확보하고, 아이와 부모의 보육 수요에 맞춘 다양한 보육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가정양육 수당 지급 등 아동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125억원, 보육 교직원 장기간수당 등 보육 교직원 자질 향상과 처우 개선을 위한 사업에 10억원을 투입한다. 또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365일 24시간제 연장 보육사업 등 24개 사업에 95억원을 투입하고, 423종 990개의 장난감 대여점 운영에 4천만원을

투입한다. 세부적으로는 생애 초기 가정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육아에 대한 지역사회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 1월 이후 출생하는 영아를 둔 양육가정에 매월 30만 원씩 23개월까지 '영아 수당'을 지급한다. 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5세 미만의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고, 365일 24시간제 어린이집을 운영해 긴급돌봄이 필요한 부모들의 이용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정읍=김대환기자



권익현 부안군수는 30일 하서면을 찾아 2022년 군민과의 생생소통대회를 진행했다.

## “2022년 부안 대도약의 원년”

권익현 부안군수, 2022년 하서면 군민과의 생생소통대회 진행

권익현 부안군수는 30일 하서면을 찾아 2022년 군민과의 생생소통대회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하서면 돌마리아센터에서 철저한 방역과 함께 120여명의 기관·단체장,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다. 행사는 하서면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최점자)와 이장협의회(협의회장 황선관)의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장학금 기탁을 시작으로 면정보고, 군정비전 공유, 생생소통대회 순으로 이뤄졌

다. 권익현 군수는 2022년 군정목표와 추진전략을 공유했으며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어 하서면 주요 사업장 6개소를 방문해 사업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주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양해승 하서면장은 "2022년이 부안 대도약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합심해 노력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부안=김석진 기자

## 고창군 “유채꽃 · 청보리 보러오세요”

경관지구 영상 · 사진 공모전

고창군이 '아름다운 경관 1번지 고창'을 주제로 고창 경관지구 영상·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공모대상은 화려한 유채꽃과 어우러진 고창군의 경관지구를 중심으로 각종 문화유적과 청정고창을 소재로 촬영한 영상 및 사진이다. 전국 만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및 등록 외국인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접수기간은 경관작품(유채 및 보리)이 본격적으로 개화하는 4월15일부터 5월20일까지 약40일간 진행된다. 총 28개작품(영상 4개 작품, 사진 24개 작품)을 선정할 예정이며, 영상 작품은 촬영분의 60% 이상이 경관지구, 40% 내외의 고창 문화유적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사진은 경관지구에서 촬영한 작품으로 출품해야 한다. 고창군은 2020년부터 유채 경관지구



고창군이 아름다운 경관 1번지 고창을 주제로 고창 경관지구 영상·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를 조성해왔다. 보리밭 유채꽃 등 자연경관을 관광상품화하면서 농업소득 기반이 다양해졌다. 올해는 고창군 전역에 약1800ha의 경관지구가 만들어졌다. 유채기름용, 조식용 등에 따른 새로운 농가소득의 수익창출 기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 이학수 정읍시장 예비후보, 시민 안전 최우선 온라인 개소식 열어

더불어민주당 이학수 정읍시장 예비후보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신 이 예비후보는 오는 31일 정오에 페이스북 라이브와 유튜브 등 SNS 온라인을 통해 선거사무소를 직접 소개하는 홍보의 자리를 만든다. 이 같은 결정은 지난 대선 기간 출판기념회 취소에 이어 두 번째다. 이학수 예비후보는 "지지자들의 요청으로 당초 4월 초에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기로 하고 준비해 왔으나 정읍시

의 코로나 기세가 꺾이지 않아 고민을 거듭하던 중 '대규모 행사가 이루어진다면' 아직은 시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겠다는 생각 끝에 개소식을 갖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의 이 같은 결정은 최근 6.1 지방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타 예비

후보들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소식이 연일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전해진 소식으로서 시민들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예비후보는 관련해 "코로나 종식이 안 되었고, 정읍 경제와 민생이 지속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대규모 인원을 초청하여 개소식을 개최한다는 것은 '시민을 위한 시장이 되겠다'고 나선 후보로서 도저히 가질 수 없는 이윤배반의 행태"라고 지적했다. /정읍=김대환기자



## 고창군, 듣고 이해하고 소통하는 현장행정 실현

고창군이 군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는 '찾아가는 이동군청'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찾아가는 이동군청'은 2019년 하반기부터 군수가 고창군 14개 읍·면을 직접 찾아가 군민의 어려움을 듣고 군정을 공유하며 참여하고 소통하는 섬김행정의 대표 정책이다. 올해 이동군청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군정을 위해 애쓰는 이장단과의 공감대화에 초점이 맞춰 운영되고 있다. 특히 현재 활발하게 추진 중인 사업현장을 지역 주민들과 돌아보며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응원하기 위해 민생현장을 방문하여 지역 현안을 살피고 있다. 여기에 나눔과 봉사의 기부 천국 고



창군에 걸맞게 고창군 생활민원기동처리반에서 실시하는 도배 봉사를 함께하며 주민들에게 착한 영향력을 전하고 있다. 고창군수는 "더욱더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고 꼼꼼하게 살펴 군민들을 위한 행정을 실현하고 주민들과 함께 더 잘살고 더 행복한 고창군을 만들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